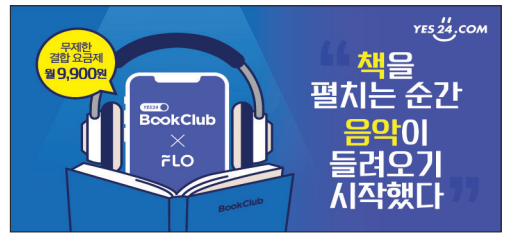




기독일보



2021년 3월 3일 수요일 (음력 1월 20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747호

총신대 정이사 논란... 소강석 총회장, 교육부총리 만난다

예장 합동, 실행위 열고 반대 입장 재확인
교단 소속 아닌 여성 이사 3인 부당함 제기
설립자 격인 총회 무시했다, 격앙된 반응도
임원회에 결정 일임... “최대한 항의할 것”

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측이 최근 3명의 여성들을 포함해 총신대학교 정이사 15명을 선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에 대한 교단 차원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합동 측은 2일 오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제105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사분위 결정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향후 대처와 관련된 결정을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총신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분위가 총신의 정관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직 총신의 정관은 개혁신학적으로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에 교육부가 추천한 여성 이사는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고 했었다.
이날 실행위에서 한 위원은 “지금까지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여성 이사가 있었



예장 합동 제105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던 적이 없었다. 더구나 이번에 선임된 3명의 여성은 우리 교단 소속도 아니”라며 “과연 사분위가 정말 사학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곳인지 의문이 든다. 마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같다”고 했다.

또 이날 이런 점 외에도 사분위가 총신대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후 정이사를 선임하면서 총신대를 설립한 총회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했다. “사

분위가 총회를 무시했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특히 이렇게 된 것이 총신대 구성원들 중 일부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에 관계된 인사들에 대한 총회 측의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후 “실행위에선 인사 관련 결의를 할 수 없다”는 등 토론이 이어지다 결국 모든 대응에 대한 결정을 임원회에 일임했다.
이에 소강석 총회장은 “어제(1일) 정이사로 선임된 분들(3인 여성 이사 제외)을 긴급하게 소집했다. 모든 분들이 총회 뜻에 따르기로 했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 총회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목요일(4일)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만나기로 했다. 총회의 사

정을 전하고 최대한 항의해 보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소 목사는 총회 측이 느끼는 부담성과는 별개로 현실적 한계 또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사분위는 준 사법기관이다. (정이사 선임 결정은) 판결을 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금은 사학법이 (총신대) 정관보다 위에 있다. 법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사분위는 지난달 22일 총신대 정이사 15명을 선임했지만, 아직 이들에 대해 교육부가 취임을 승인하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실행위는 총회세계선교회(GMS)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선교사들에 대한 특별지원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캠퍼스 선교 위해 눈물 흘릴 중보기도자 필요”

JDM 대표 윤태호 목사,
‘캠퍼스33기도’ 메시지

최근 열린 캠퍼스의 청년들을 위한 거룩한 기도운동 ‘캠퍼스33기도’ 새벽기도회 라이브 첫날 행사에서, 예수제자운동(JDM) 대표 윤태호 목사가 캠퍼스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에스겔서 22장 23-31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윤태호 목사는 “영적인 위기와 고통 속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가 유일하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의 빛을 던져줄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그는 “캠퍼스가 닫히고 복음이 거절당하고 있다. 예수님이 강의실에서 추방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향취를 맞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캠퍼스를 구원하고 구출하고 살려낼 그룹이 없다는 것이다. 인류의 타락을 향해서 생명의 불을 던질 교회가 필요하고, 캠퍼스를 구출해낼 젊고 뜨거운 영혼들, 뜨거운 예수님의 피를 가진 영혼들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캠퍼스33기도를 하게 된 동기”라고 했다.
윤 목사는 “본문인 에스겔서 2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패하게 된 책임이 누

구에게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당시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조차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멋대로 살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지도자들에게 이젠 아니라고 막아설 사람이 없다는 것에 한탄하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그는 “오늘 이 땅의 캠퍼스와 젊은이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구출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한 주간 중보기도회를 하게 된다. 중보기도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멋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에 필요하다. 가장 거대한 선교지가 이제 대학이 되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이 25세 미만이다. 이제 어느 나라, 대륙, 밀집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구대의연한 선교적 개념이 아니다. 캠퍼스야말로 복음 전도가 필요한 미전도종족이 모여 사는 밀집지역이 되고 말았다. 무신론자들, 이념 주의자들, 반기독교적인 교수와 젊은이가 산재해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고 있는 이 대학가”라고 했다.
이어 “또 캠퍼스는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비행기를 타고 선교 오지도 갈 필요 없이 캠퍼스 대문 앞을 지키고 있으면 수많은 해외 유학생들, 접근 불가능한 곳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제는 우리 근처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질을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절실하게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은 지금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에스겔서 22장이 수많은 계층의 타락한 이야기를 논술해주면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금홍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 쓰러진 중보의 짐을 짊어지겠다는 중보기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하다. 캠퍼스 사역에 대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통계와 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불붙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인 것이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불, 뜨겁게 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의 뜨거운 불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윤 목사는 “22년 전에 한국교회와 함께 깨는 캠퍼스33 기도운동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젊은 사역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도, 소그룹, 큐티, 순



설렘 가득... “반가워요” 코로나19 시국이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들도 매일 등교하게 됐다. 2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첫 등교를 한 1학년 학생들이 담임교사와 함께 입학식을 하고 있다. ©뉴스1

방, 등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를 고민했다. 영적 진단의 결과,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그룹이 어디일까? 교회이다. 한국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수백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는 곳이다. 그 한국교회와 함께 젊은이들을 살려내는 운동을 일으키고자 ‘캠퍼스33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22년의 세월이 쌓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기도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요청이고 사랑이다. 주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한 영혼이라도 품에 안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민족과 교회와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캠퍼스를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기를 바란다. 337개의 한국 캠퍼스, 전

세계 15,000개의 캠퍼스가 기도의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질 줄로 믿는다. 261만 명의 대학생들, 세계 인구의 50%가 넘는 25세 미만의 젊은이들, 49만 명의 새내기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는다”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강연에 이어 청년대학생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지현 기자

상암을 품은 한강생활권

6호선 바로 앞 지금이 기회!

CLESSE 클레세

서울 전세가 내집마련 1.5룸/투룸 특별공급

마포 클레세 투자 프리미엄 07

- 6호선 초역세권 도보1분
- 상암 DMC 탄탄한 배후수요
- 한강 및 월드컵공원 도보권
- 6개 대학교 수요, 명문 교육환경
- 지역 내 1.5룸/투룸 공급부족 해소
- 월드컵대교 개통(예정)
- 대형마트, 병원, 문화시설 갖춘 인프라

수탁 우리카산신탁 (주)뉴씨터산업개발

모텔하우스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30 (합정동 381-23)

1833-3832

※ 상기 투시는 소액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 주변 건물들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여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개발계획 및 예정사항 등은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